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7일 목요일 음 4월 15일 (7물)

기상정보

맑음

제주도는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16℃, 낮 최고 기온은 20~22℃의 분포를 보이겠다.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을 것으로 예상돼 만조 시 해안가 저지대 지역은 침수 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오 전	강 수 확 률	오 후
0%	제 주	0%
0%	성 산	0%
0%	고 산	0%
0%	서귀포	0%

	해뜸 05:40	달뜸 19:11
	해짐 19:21	달짐 05:34
물때	만조 10:18	간조 04:44
	23:02	16:53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15/24℃
모레	흐리고 비	19/25℃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관심	매우높음

월드뉴스

“람보르기니 살래요”… 5세 소년 홀로 운전

부모차 운전대 잡았다 적발

홀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미국 5살 아이.

미국 유타주의 5세 소년이 고급 스포츠카 람보르기니를 사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가야 한다면서 부모 차를 직접 몰고 나왔다가 고속도로 순찰대에 적발됐다고 5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유타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전날 15번 고속도로에서 이상하게 달리는 SUV 차량 1대를 발견하고 도로 갓길에 멈춰 세웠다.

이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70마일(112㎞) 고속도로에서 32마일(51㎞) 속도로 움직였고, 도로 가운데를 정주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순찰대 경찰은 차량에 다가갔다가 어린아이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이 아이는 차량 페달을 밟기 위해 운전석 가장자리에 겨우 걸치고 앉은 상태였다. 아이는 몇살이냐는 경찰의 질문에 5살이라고 답한 뒤 캘리포니아주 람보르기니 매장을 찾아가기 위해 부모님 차를 직접 몰고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이는 부모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를 사달라고 조르다 꾸중만 듣게 되자 부모 몰래 차를 몰고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의 부모는 누나에게 아이를 맡기고 외출을 했는데 아이는 누나가 잠든 틈을 타 차 열쇠를 챙겨서 나왔고, 혼자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하지만 고속도로로 들어선 뒤 대략 4㎞를 운전해서 가다 순찰대에 적발됐고, 아이는 부모에게 인계됐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이 용 곤 편집국장 조 상 윤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목요담론

정 찬 식
제주도체육회 운영부장

코로나19 극복의 스포츠 활동

중단됐던 스포츠 활동이 되살아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선언과 함께 2020도쿄올림픽이 1년 뒤로 미뤄지고, 세계적인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사실상 리드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모든 스포츠 리그가 일제히 중단된 상태다.

그럼에도 5일부터 프로야구(KOB) 리그가 무관중으로 경기 개막을 알렸고 8일 부터는 프로축구 K리그, 14일부터는 여자 프로골프(KLPGA) 경기가 시작된다.

4월 계획됐던 전국생활체육대축전과 5월 전국소년체전 등 전국단위 종합경기대회는 여전히 잠정 연기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중단된 스포츠 활동의 재개는 평상의 일상을 기대하는 모든 이에게 큰 위안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의 고강도 사회 거리두기는 사회 전반은 물론이고 특히나 신체적 대면 접촉이 필수적인 스포츠계에도 큰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집콕 운동' 등 신조어가 생겨나고, 도내에서도 초중고 체육교사 33명이 펼친 "아무 저글링 챌린지"에서 보듯이 SNS를 통해 개별적 수준의 '피지컬 피트니스 챌린지' 등 새로운 유형의 신체활동 유형을 선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적응하지 못한 상점은 문을 닫고, 공장은 가동 중단되고 하늘 길과 바닷길마저 과거의 일상과 달리 열리면서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다른 세상이다'는 얘기도 회자되고 있다. '이제는 살아남는 자가 강자가 아니라 적응하는 자가 강한 자'란 말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체 접촉과 대면 활동이 핵심인 스포츠 역시 코로나19 이후 종전과 같은 형태로 회귀할 수 있을 거라고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변화되고 있는 환경에 새로운 도전과 창의적 노력으로 새로운 일상의 스포츠를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체육계 내부에서는 그동안 대세였던 경기와 경쟁 중심의 활동에서 새로운 변화 욕구를 반영한 혁신 작업을 진행해 왔다. 스포츠 가치 인식에 대한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스포츠헌장과 스포츠가이드라인이 제정 발표된 바 있고, 이의 각성으로 비롯된 체육계의 미투(me too)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조직되고 지난해에 7차에 걸친 스포츠혁신권고안이 나와 있는 상태다. 이러한 맥락과 같이해 사회 일반에서도 단지 신체적 능력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지(智)적 심(心)적 능력까지 함양하는 스포츠 리터러시(소양)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변화와 혁신은 삶의 양식을 바꾸지 않고는 기대할 수 없다. 삶의 전반에 변화를 몰고 온 코로나19는 '혁신'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동안 늦춰졌던 혁신들이 빠르게 수용하고 적용하면 새로운 일상과 표준(New Normal)도 만들어 낼 것이다.

스포츠 경기에 노멀 타임(Normal Time)에 추가된 인저리 타임(Injury Time)이 있다. 정상적인 시간에서 놓쳐진 상처받은 시간을 보충하는 시간이다.

코로나19 생활방역 단계에서 재개되고 있는 스포츠 활동이 앞으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나가야 한다. 스포츠계에 제시된 변화와 혁신안이 코로나 19라는 인저리 타임을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스포츠를 만들어 내고 우리의 일상으로 정착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열린마당

제주형 방역모델과 청정 제주

강 성 택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실

어느새 코로나19 사태가 100일을 넘기고 있다. 모두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다행히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체제로 전환하는 수준까지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 등 신속한 진단검사, 감염자 및 접촉자 추적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등에 대해 호평하고 있다. 여기에 위기를 함께 이겨내야 한다는 국민의식과 국가의 민주적인 대응으로 정부를 신뢰하게 되면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없었고, 대구지역 의료진 등의 자원봉사는 전 세계에 귀감이 되고 있다.

제주의 코로나19 대응체계는 어떨까?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한 단계 빠른 선제적 방역대응으로 지역사회 감염은 제로이다. 확진자 발생과 동선, 역학조사 등의 정보를 24시간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속에 대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또 코로나19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보다 앞서 심각단계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조기 가동과 해외방문 이력자에 대한 특별입도절차 운영, 공항만 국경수준의 발열체크 및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설치,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 일시 중단 등은 제주의 특성에 맞는 모범사례로 꼽고 싶다.

이러한 제주의 맞춤형 방역대응 체계는 정부의 방역지침보다 선제적으로 시행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결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주만의 방역모델로서 청정 제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의료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방역수칙을 준수하자.

코로나19 위기와 국민건강보험

김 희 웅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장

한국의 코로나19 모범적인 대응에는 보건의료인의 열정과 희생정신,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의 모범적 대응 이면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묵묵히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코로나19의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가능했던 것은 "치료비 부담 없음"이라는 큰 장점 때문이다. 코로나19 치료비가 중증도 환자의 경우 약 1000만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80%, 국가에서 20%를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0원이다. 미국의 경우 치료비 평균은 4300만원 수준으로 민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 금액을 전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보험료율은 14.6%, 프랑스 13%, 일본 10% 등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한국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6.67%로 매우 낮으면서도 사업장에서 절반을 부담해 본인은 3.335%만 납부하면 된다. 의료이용을 보면 2017년 기준 OECD 외래이용 횟수가 평균 6.8회인데 반해 한국은 16.6회이고, 입원의 경우 OECD 평균 8.1일인데 한국은 18.5일이다. 높은 의료접근성이 조기진단과 조기치료를 가능하게 했고, 건강보험 DB를 이용한 환자 분류, 효율적 치료로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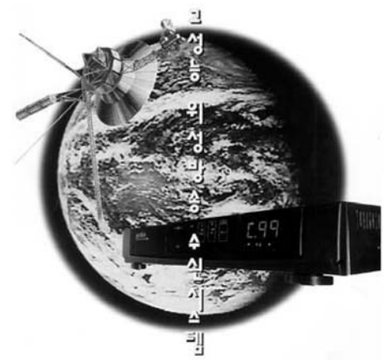
한국의 건강보험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을 때는 언제든지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 혜 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 금 향 4년생
탱 자 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변이지
• 천전(가와다)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묘목
아스미 식별 법
묘목엔, 가시가 길다. 열매는 주황색이며, 산이 잘 빠진다(1월 중순-2월 초순 평균 산 0.95) 껍질 벗기기 쉬우며 진물이 나지 않는다. 무겁고 식감이 월등하다(20브릭스 이상 만드는 농가도 있음) 다수확이며, 해거리가 거의 없다. 상기에 부합되지 않으면, 아스미가 아닙니다. 아스미는 앞으로 제주 감귤을 대표할 보물입니다. 다른 감귤을 같이 팔아서 이미지 추락을 자초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보물은 소중히 다룰 때 비로소 보물입니다.
유라실생 천혜향 궁천변이
하례조생 한라봉 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폰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 표 : 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